

원창희(부산상고1) 53회 동기) 1차 구술

1. 구술자: 원창희
2. 면담자: 강희영
3. 촬영자: 이대희
4. 구술일자: 2011년 8월 5일
5. 구술장소: 부산 사상구 구술자 사무실
6. 구술분량: 12분 28초 / 일부 공개
7. 주요내용: 청문회 스타 노무현의 국회의원직 사퇴²⁾에 얽힌 이야기

구술자 : 국회 들어가고, 들어가서 인자(이제) 청문회 스타³⁾가 딱 [되니까] 얼마나 신나요. [부산에] 내려와서 같이 다니면 같이 다닐 수가 없어. 싸인(sign)해달라고 연예인[처럼], 전부 알아보고 싸인해달라고 이러니까 야 이거 뭐. 본인도 그래 엄청 시달리니까 굉장히 피로한 거 같더라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우리 친구들 몇이 만나가 이래하고 ‘야, 노 의원. 야, 니가 말이야 쥔 똑똑하더라. 니가 쥔 낫다. 니 앞으로 대통령 감이다. 니 대통령 한번 해라.’ 그때 친구들이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실지(실제) 또 우리가 보니까 [정치인 중에] 뭐 별 사람 있냐 [싶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래 다녀보면은 하... [피곤해보이고] 그러가지고 어느 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해⁴⁾ 인자 하고나서 한 번은 거[기를] 갔지. 거제도 가서 배를 하나 빌려가지고 무인도 갔어요. 무인도에서 이(2)박 삼(3)일 했거든.

면담자 : 두 분이서요?

구술자 : 아니, 우리 친구 그러니까는 한 다섯 명 갔어. 다섯 명. 둘이 말고 세 사람 더 보태가 다섯 명 가서 이(2)박 삼(3)일. 배가 장어 잡는 통발선. 배

1) 현재는 개성고등학교

2) 조선의원 노무현은 1989년 3월 19일 김재순 당시 국회의장 앞으로 친필로 쓴 ‘국회의원 사임서’를 제출했다. 표지를 포함해 모두 8장으로 되어있는 사임서에는 의정활동에 대한 조선의원 노무현의 고민, 분노와 절망이 깊게 배어있다. 사임서와 관련내용은 노무현사료관의 사료이야기 ‘1989년 3월 정부 여당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분노, 자필로 쓴 사임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노 의원은 주위의 설득으로 17일 만에 사퇴를 철회했다. 이에 관한 구술자 개인의 기억이다.

3) 조선의원 노무현은 제5공화국비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1988년 11월 시작된 이른바 5공 청문회에서 전두환 정권의 비리와 정경유착 관계를 파헤쳐 일약 ‘청문회 스타’로 떠오른다. 초기 저서 <여보, 나 좀 도와줘>를 통해 “어느 날 아침 일어나보니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다”고 직접 기록하고 있다.

4) 구술을 유추하면 1989년 초 정도로 보인다.

에 가면 물 칸이 있어가지고 고기가 잡혀있고 배에서 밥도 해주고 이러니까. 내가 마침 아는 분이 그걸 해가지고 배에서 밥 해먹고 이(2)박 삼(3)일 낚시도 하고. 거기서 텐트 쳐놓고. 거기는 뭐 뉴스, 신문 이런 거 전혀 안보니까. 라디오 이런 거 전혀 그때는 안가지고 이(2)박 삼(3)일을 그냥 원시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고민들이 또 나오고. 그때 이야기가 그럴더라고. ‘야, 이거 말이야. 국회의원 해봐도 아무 힘이 없다’ 이거야 그때는. 그니까는 무력감에 빠졌어. 사(4)당 체제⁵⁾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국회의원이 아무 힘도 없다 이거야. 뭐 하나, 법안 하나 발의도 안 된다 이거지. 그때 사(4)당 체제니까. ‘내가 국회의원 이거 괜히 했다. 차라리 고만 시민사회운동을 할 걸’ 거기(그게) 또 절실하더라고 자기 나름대로. 시민사회운동을 하면 뭔가 하나 이슈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소위 말하자면 시민들을 갖다 설득하고 [할 텐데]. 나름대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를 거기 있는 동안에 하고 그래서, 그것도 또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휴가 끝나고 갔는데 우이(어찌) 됐던 간에 사표를 내고 잠적해버렸어⁶⁾. 뉴스에 들으니까 막 사표 냈다는 거예요. 그때 전혀 그런 김새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인자 권[양숙] 여사한테. 내가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큰일 났다’ 고. [그만 둔 게] ‘사실이냐?’ 했더니 사실이라. ‘어데(어디로) 갔냐’ 하니 행방불명이라는 거야. [남편을] 좀 찾아 달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강태룡⁷⁾ 친구하고 그때 내하고 둘이서, 난 운전을 할 줄 모르고 강태룡 친구가 운전을 하고. 그런데, 옛날에 그런데 처음 나올 때 (차)에다가 카폰(car phone, 자동차에 설치된 무선전화)을, 옛날에는 카폰 안테나(antenna) 딱 단 거 부산경남에 이제 오백(500)대가 처음 나온 거거든, 카폰이. 그 카폰을 달고 서울까지 간

5) 1988년 제13대 총선(4·26) 이후 처음 형성된 여소야대 구도로 여당인 민주정의당(노태우)과 야당인 평화민주당(김대중), 통일민주당(김영삼), 신민주공화당(김종필) 4당이 의석을 나눠가졌다.

6) 노무현은 1989년 3월 17일 제도정치에 한계를 느끼고 국회의원직 사임서를 쓴다. 자서전 <운명이 다>를 통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1989년 3월의 어느 봄날이었다. 가로수들이 화창한 봄볕 아래서 싱그럽게 어린잎을 피워 올렸고 하늘빛도 무척이나 고왔다. 오전 본회의를 마치고 국회 정문을 빠져나오다가 버스 정류장에 행색이 초라한 사람들이 우두커니 줄지어 서 있는 광경을 보았다. 수행비서가 ‘상계동 철거민들인데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밀려났다’고 했다. 플래카드를 둘둘 말아들고 맥 빠진 표정으로 서 있는 그 사람들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검은색 승용차가 줄지어 지나가고 있었다. 시트 깊숙이 몸을 묻고 고개를 숙였다. 그들과 눈이 마주칠까 두려웠다. 슬픔이 어깨를 짓눌렀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사람들이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막는 국회에 몸담고 있는 것이 부끄러웠다.”

7) 부산상고 동기다. 2016년 현재 ㈜센트랄 회장, 경남경영자총협회장을 맡고 있다.

거예요. 서울에 가니까 인자 민주당⁸⁾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 태워주더라고. 그래서 문경에 있는 신영국 의원인가 앞에 태우고 이래가, 우이동에 나타났대니까 우이동으로 [가고]. 어데 제보 들어오는 대로 다니는 거야. 다니다 허탕치고. 사람들이 다 알잖아. 이제 청문회 스타가 돼버리니까 ‘노 의원’ 하면 다 아는 거여. 어디 나타났다, 왔다, 보였다 이런 이야기들은 나오고 [찾아가면] 그래 허탕치고. 보좌진들 이야기 들으니까 그 다음에 스케줄(schedule)이 전라도에 무슨 농민대회 이런 데 미리 약속이 되어있는 게 있었다 이거야. 고창이니 뭐 이런 데. 그래서 혹시 거 갔을 지도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전라도로 막 실컷 돌아다니다가 결국 아예 그냥 찾지도 못하고 왔어. ‘아 이거 어쩐다. 친구 하나 완전히 인연 끊는다’ 이라고 왔는데, 며칠 이제 고생했지.

한 이틀인가 지나고 새벽에 전화가 온 거야. 권 여사 전화가 와가지고 ‘상욱이 아버지, 지금 빨리 좀 첫 비행기로 올라오면 좋겠다’ 그래요. ‘왜요?’ 이러니까 [노 의원이] 지금 새벽에 집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 래가지고 내가 강태홍 회장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첫 비행기 타고 [가는 데] 문재인⁹⁾ 변호사도 왔더라고. ‘어데 가요?’ 이러니까는 서울 간다 고. 그러니까 똑같은 전화 받은 거야. 여의도 갔거든. 그때 이제 미성아 파트 살 텐데, 탁 가니까 [노 의원은] 자고 있어. 그러니까 간호 엄마¹⁰⁾ 가 이제 인기척 듣고 깨워가지고 ‘야, 그 뭐 할라 왔냐’ [하더라고요]. 그 래가지고 좀 있으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열두 명이 쫓아왔더라고. 야, 이거 뭐 김동영¹¹⁾, 최형우¹²⁾ 그때 다들 와이에스(YS, 김영삼) 오른팔 왼 팔 다 온 거야. [김영삼 씨가] 심지어 얼마나 답답했냐 하면은 카폰 달고 차타고 다녔는데, 와이에스(YS)가 직접 차로 우리에게 전화해가지고 ‘좀 찾아 달라’ 고. 그만큼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의원이 아주 귀중한 존재였 어. 그러니까 간곡히 우리에게 부탁하고 그래 할 정도니까, 친구들이 좀 고생해 달라고. 그런데 [통일민주당 의원들이] 그라고 오더만은 우격다 짐¹³⁾에 인자 뭐, 우린 눈에 안 보이지.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문[재

8) 통일민주당

9) 1980년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1982년부터 부산에서 노무현 변호사와 함께 합동법률사무소를 시작 했다. 대통령 재임기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을 맡았다. 노 대통령은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10) 권양숙 여사를 지칭함.

11) 김영삼 대통령의 야당 정치인시절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9대·10대·12대·13대에 걸쳐 4 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때 당시는 통일민주당 수석부총재였다.

12) 김동영과 함께 대표적인 상도동계 정치인으로 꼽히며 ‘좌동영 우형우’로 불렸다. 이때 당시는 통일민주당 원내총무였다.

13) 의원직 사퇴 철회를 요청하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인] 변호사까지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해보야 뭐 설득 됩니까 그래? 그 양
반들 [노 의원] 성격을 알아야 되는데, 우격다짐으로 뭐 그냥 [의원직 사
퇴 철회하라고] 싸인하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안 되겠더라
고. 밖에서 들어보니까. 그때 보니까 자기 모친도 와 있고, 장모도 와 계
시고 설거지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안에서 어떤 이야기하는지 노인네[들
이] 내가 가만 보니까 두 사람이 귀를 쫑긋해가지고 있는 거야. 내 그 모
습이 너무나 선연하게 들어와. 참 가슴이 따끔하더라고.

그래 내가 그 문을 노크(knock)하고 저 친구(노 의원)만 좀 나오라 그랬
어. 다른 분들은 나오지 마라 했어 내가. 다른 분들은 있고. 내가 저 친
군데, 다른 분들은 나오지 말고. [둘이서] 소파(sofa)에 앉아가지고 [나
보고] 담배를 하나 달래. 담배를 주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 그래서 내
가 그 이야기를 했어. 어떤 이야기를 했냐하면 ‘야, 니 그 사표 낼 때
엄마, 어머니한테 이야기했나’ 이러니까 어머니한테 이야기했대. ‘뭐라
고 얘기했느냐?’ ‘내가 몸이 아파서, 몸이 안 좋아서 국회의원 내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고, 그리 얘기했대. ‘어머니는 뭐라 하드노?’ 아무
말도 안하더라 이거야. ‘그거는 자식이 말이야,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게
어데에(어디에) 있냐.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못하겠다는데 야, 그래도 해
라고 하는 부모가 어데 있겠노, 응?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노인네 둘이
서 설거지하고 있는 거 보니까 니가 만약에 사표 내고 이대로 그만두면
느그 엄마하고 느그 장모가 아마 얼마 못살 거 같다.’ ‘왜?’ ‘기가
빠져서. 기가 빠지면 사람 죽는다. 얼마 못살 거 같다. 그러니까 니가 이
거 큰 불효하는 거다.’ 내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니 고
시하고 열심히 공부할 때 뭐 땀에 니 그리 열심히 했냐. 이유가 뭐냐.’

[노 의원이] 아무 말도 안하더라고. ‘나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가
요거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되겠다[고 할 때]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는 건
내가 부모한테 성공해서 효도를 해야지 내 자식, 내가 무슨 뭐 내 마누라
잘 먹여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다. 내가 부모한테
효도, 내 이 생각’ 그러니까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 [노 의원이] ‘그
래. 내가 잘못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저럴 때는 그냥 쳐주는 거
[다], 저준다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안에서 사람들이 들은 모양이야.
최형우 씨하고 쫓아 나오더라고 ‘친구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웃음] 사표 번복서에 이래가(이렇게) 손잡고 이름 석 자만 적으라 해가
지고 이름 석 자 적었어. 적고 났드니만은 최형우 씨가 ‘내가 삼(3)배를

하겠습니다, 삼(3)배.’ 처음에 인자 ‘요거 [사인]하면 내가 삼(3)배를 올리겠다’ 이 이야기하더라고. 진짜 싸인하고 나니까 삼(3)배를 딱 올리는 거야. 옆드려서 삼(3)배를 딱 하더니만은 일어나서 싸인 받은 걸 막 북북 찢어버리는 거야. 그래 내가 순간적으로 ‘저 양반이 어렵게 겨우 꼬셔가지고 싸인 받았는데 저걸 와 찢노’ 싶어서 가슴이 통 하더라고. 아 근데 참 [최형우 씨가] ‘노 의원 어차피 싸인 한 거 자들이 시비 걸지 모르니까 자필로 적어주십시오’ 그러니까네 옆에서 ‘어차피 마음먹은 거 깨끗하게 적어줘라’ 나도 종용하고. 그래가지고 [자필로] 적고 같이 가고¹⁴⁾

■ 구술자 주요이력

1947. 경남 거제 출생

1966.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

1974. 동아대학교 학사

1981.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1967. - 1977. 국세청 근무

1977. - 1993. 창영금속 (주)오너가공 등 금속제품 제조 및 기계제조업 경영
(양산, 창원 공단)

2001. - 2002.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시 부산상고 총동창회 총괄

부산 선거대책본부 국민참여운동본부 공동본부장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부산지역위원회 고문 (2016년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53회 동기이다. 졸업 후 동기 노무현이 울산에서 막노동을 하다 크게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만난다. 그때부터 고시공부를 하고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정치계에 입문,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이 되고 퇴임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든 과정을 지근거리에서 함께했다.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부산상고 총동창회를 총괄하며 부산 선대본부 국민참여운동본부

14) 열흘 만에 집에 돌아온 노무현 의원은 권양숙 여사, 문재인 변호사, 부산상고 동기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간곡한 설득으로 의원직 사퇴 철회서를 쓴다. 훗날 이때를 “잔인한 봄이었다. 이 사건은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었다. 국회의원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인간적 고뇌와 절망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고 회고했다.

장으로 활동한 것을 비롯, 주요 시기마다 있는 힘껏 도와준 죽마고우다.